



# Re:Survive

수능국어 : 실전 생존을 위한 11가지 방법

---

## theme4 : 명제의 판단

최근 경향에서 주요했던 방법론.

독서 지문 자체가 길지 않고 소화해내기 어렵지 않게 나옴. 따라서 변별을 주기 위해서 선지를 독해해내기 어렵게 출제함.

### 어려운 선지를 뚫어내는 방법은

- 1) 선지에서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여 명제로 치환한다. ( $p \rightarrow q$ )
- 2) 치환한 명제에서 원인(p인지, 원인을 전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. 전제는 일종의 가정이기에 틀릴 수 없으므로 유의), 결과(q), 연결(p여서 q인지) 3가지로 나눈다.
- 3) 각 3가지 부분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.

## theme5 : <보기>

독서에서 <보기> 문제는 논리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문의 내용이 <보기>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**간단히 정리 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**

문학에서 <보기> 문제는 크게 **형식적/내용적** 보기로 나뉨.

형식적 보기는 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다 읽고 난 후 처리할 것.

**내용적 보기는 문학 자체를 감상하는 데에 방향성을 제공하고 요약된 핵심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지문을 읽기전 먼저 읽고 감상의 방향성을 잡은 후 지문을 독해할 것.**

다만, <보기>의 내용이 완벽히 지문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음. 유사한 내용의 다른 작품에 관해 서술된 경우도 있으니 유의

---

## theme6 : 문학에서 주제와 선지소거

- 1) 먼저 제목을 통해 가볍게 주제를 파악한다.
- 2) 내용적 <보기>를 이용해 독해의 방향성을 파악한다.
- 3) 지문을 읽어가며 주제를 생각한다.
- 4) 선지 판단시에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선지는 세부 판단 할 것도 없이 소거한다.

## theme7 : 글이 튕길 때

지문이 튕기거나 문장을 읽고도 전혀 표상이 되지 않는 등의 의미맥락상으로 아무정보도 얻지 못했을 경우(독해실패)의 대처법

- 1)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끊어서 의미를 파악한다.
- 2) 단어 -> 문장 -> 문단 -> 글 전체로 단계를 높여가며 파악된 의미로 새로운 맥락을 구성하여 이해한다.